



타이거즈 왕조 재건 판 깔렸다

사령탑 첫해 우승 감독에 등극한 KIA 이범호 감독이 3일 3년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왕조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행가래를 받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이범호 감독 2년 계약 파기...2027 시즌까지 임기 약속 '연봉 수직 상승' 2월 스프링캠프 중반 사령탑 선임... '통합 우승' 재계약 성공 '절친' 김주찬, 벤치 코치 영입...더 강력해진 '이범호호' 구축



'이범호호'가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한다. 사령탑 첫해 '통합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이 3일 재계약에 성공했다.

KIA는 이날 "이범호 감독과 3년간 총액 26억원에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 등 총액 26억원의 규모다. 이범호 감독은 지난 2월 계약기간 2년, 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 총액 9억에 타이거즈 제11대 감독에 올랐다. 전임 김중국 감독이 금품 수수 혐의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캠프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다. 사령탑 없이 캠프가 시작됐고, 2월 13일 이범호 타격 코치가 감독으로 전격 승진했다. 2011시즌 KIA 유니폼을 입은 뒤 주장도 맡아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한 이범호 감독은 '차기 감독 후보'였다. 하지만 돌발 변수 속에 너무 이른 나이에 사령탑

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있었지만,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 총괄 코치로서의 경험을 살려 안정적인 팀을 이끌었다. 1군 타격 코치 경력을 바탕으로 팀의 '공격 야구'도 지휘하면서 정규 시즌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고, 첫 한국시리즈에서도 '불패 신화'를 잇고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과정과 결과로 사령탑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이범호 감독은 구단과 상호 합의를 기존 2년 계약을 파기하고 2027시즌까지 임기를 약속받았다. 계약금과 연봉도 수직 상승했다. 재계약으로 힘을 얻은 이범호 감독은 '왕조 재건'을 위한 목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KIA는 앞서 2009년과 2017년 통합 우승을 이룬 뒤 '꾸준한 강팀'을 목표로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우승 분위기를 잇는데 실패하면서 원점에서 '왕조 재건'을 외쳐왔었다. 최준영 대표이사는 지난 28일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뒤 진행된 축사회에서 "대표이사로 부임하고 3년 차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를 이뤘다"며 선수단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앞으로 5연패를 하면 좋겠다. 5연패를 해서 진짜 타이거즈 왕조가 됐으면 한다"고 왕조 재건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최준영 대표이사는 재계약을 통해 이범호 감독이 장기적으로 팀을 다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이범호호'를 위한 영입도 진행됐다. 이범호 감독은 전임 감독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이미 짜인 판에서 첫 시즌을 보냈다. 우승 여운은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감독과 최적의 호흡을 발휘할 수 있는 코치진 구성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맞춰 KIA는 김주찬, 김민우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 두 사람은 각각 벤치 코치와 수비 코치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김주찬 코치의 영입에 시선이 쏠린다. 올 시즌 롯데에서 타격 코치로 활약한 김주찬 코치는 이범호 감독의 '절친'이다. 손승락 수석코치와 함께 감독을 보좌하게 된 김주찬 코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등에 조언을 할 예정이다. '우승 감독'으로 보다 탄탄해진 기반에서 또 다른 우승에 도전하게 된 이범호 감독은 "처음 감독을 맡았을 때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다. 1년 1년 해가면서 도전하겠다"며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겠다. 바로바로 준비해서 좋은 성적내는 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뜨거운 공격으로 우승 질주를 했던 이범호 감독은 새 시즌을 위해 '수비'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생각이다. 이범호 감독은 "올해는 공격력으로 많은 것을 커

비했는데, 아무래도 수비가 가장 신경 쓰인다.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비 관련한 걸로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베테랑을 중심으로 '전력 유지'도 중요한 숙제다. 올 시즌 우승 주역으로 활약한 베테랑들의 기량 유지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필요할 2025시즌, '에이스' 제임스 내일의 거취와 함께 FA 자격을 얻은 장현식, 임기영, 서건창의 계약도 관심사다.

이범호 감독은 "백업 선수를 성장도 중요하데 아직 베테랑들이 죽지 않았다. 선수들 육성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모두 무리가 없게 시합에 가용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며 "우승했고, 성적을 낸 만큼 구단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일본 오키나와서 마무리캠프

신인 7명 등 31명 참가

KIA 타이거즈가 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캠프에는 투수 김기훈, 포수 주효상, 내야수 황대인, 외야수 박정우 등 31명이 참가한다. 1라운드 지명을 받은 투수 김태형을 비롯한 신인 7명도 캠프에 참가해 체력 및 기술훈련을 소화한다. 이번 캠프는 '통합 우승' 사령탑으로 바뀐 입장을 소화해야 하는 이범호 감독 대신 손승락 코치와 새로 합류한 김주찬 불펜 코치가 지휘한다. 대신 이범호 감독은 캠프 초반 3박 4일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찾아 전체적인 팀 전력을 점검하고, 캠프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캠프 참가 선수단은 4일 오키나와로 이동해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동시에 일본 가고시마에서는 회복 훈련이 진행된다.

'최고참' 최형우와 함께 김선민, 서건창, 이창진, 박찬호, 이우성, 김대유, 이준영은 박준서 트레이너 코치와 일본 가고시마에서 4일부터 8일까지 회복훈련을 한다. ◇오키나와 마무리훈련 캠프 참가 선수 명단 (*신인선수) ▲코칭스태프(18명) : 손승락 김주찬 타케시 홍세완 조재영 김민우 정재훈 이도걸 이해창 윤해진 김동후 김민기 조희영 황종현 김상훈 방석호 조승범 박규민 ▲투수(13명) : 강동훈 김기훈 김민주 김현수 성영택 오규석 유승철 유지성 이도현 *김태형 *나연우 *양수호 *최건희 ▲포수(3명) : 신명승 이상준 주효상 ▲내야수(9명) : 강민재 김규성 김두현 박민준 변우혁 오선우 황대인 *임준현 ▲외야수(6명) : 김석현 박정우 예진원 이영재 *박재현 *박헌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이정효 감독 마음 알 것 같다”

감독 경고 누적 결장에 대신 지휘봉 잡은 이정규 수석코치 K리그1 36R 대전과 0-0...10일 제주전서 '잔류' 판가름

광주FC의 이정규(사진) 수석코치가 "감독님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알 것 같다"며 겪었던 하루를 돌아봤다. 광주는 지난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K리그1 2024 36라운드 홈경기를 가졌다. 앞선 35라운드 결과에 따라 '최하위' 가능성을 지녔던 광주는 이날 승리를 거두고 '강등권' 위기도 넘기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이날 전반 대전에 공공 묵인 광주는 후반 공세를 펼쳤지만 끝내 골대를 열지 못하고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최소 9위' 확정은 이루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숨 막히는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다. 잔류 확정으로 ACLE에 집중하려면 계획이 무산된 뒤 이 수석코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이정효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벤치에 앉지 못하면서 이 수석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들고 경기를 이끌었다. 이 수석코치는 "전반 초반에 안 좋았다. 밖에서 선수들에게 피드백을 빨리 전달해야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며 "후반에 우리가 주도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특점이 안 나온 부분에서 마무리 패스 선택이 아쉽다"고 돌아봤다. 이 수석코치는 클리닝 타임 때 선수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들어가서 화를 많이 냈다. 우리가 처음에 대전한테 밀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많이 이야기해 줬다. 세컨볼이라도 상대 압박 들어왔을 때 서로 이야기해서 빨리 정보를 주자고 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잘 안돼서 화를 많이 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를 애타게 지켜보면서 이 수석코치는 이정효 감독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 수석코치는 "경기를 앞두고 걱정은 하지 않았다. 준비는 감독님이 똑같이 하시고, 교체부분도 미

리 이야기를 해주셨다. 감독님 마음을 알 것 같다"며 "(선수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많이 힘들었다. 왜 그렇게 감독님이 소리를 지르는지 알 것 같았다"고 웃었다. 무승부의 아쉬움은 있고 광주는 바로 다시 또 달려야 한다. 광주는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인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광주는 5일 일본 비셀 고베를 상대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4연승에 도전한다. 그리고 10일에는 제주와의 K리그1 37라운드 원정 경기를 통해 '잔류 확정'을 해야 한다. 숨 가쁜 시즌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수석코치는 "광주의 힘"을 믿는다. 이 수석코치는 "시즌이 길다"면서도 "다른 팀보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많다. 가족들과 있으면서 많이 회복하고 돌아온다. 감독님이 평소에는 스트레스 많이 안 주셔서 각자 역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우리팀 장점이 선수들이 재미있어하고 배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감독님이 주신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다"며 "ACLE 포함해서 경기가 많이 남았지만 선수들이 재미있게 배우려 하니까 조금 더 노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샌디에이고 김하성, FA시장 나와

800만달러 규모 옵션 발효 거부

김하성(29)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상호 합의 옵션 발효를 거절하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구단은 3일 "김하성이 800만달러 규모의 옵션 발효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와 계약기간 4+1년, 보장 금액 천800만달러,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했다. '1년 계약'은 2025년 연봉 800만달러를 받고 뛰는 '상호 합의 옵션'이다. 구단과 김하성이 모두 동의해야 발효된다. 하지만, 김하성은 '전액금'인 바이아웃 200만달러를 받고 FA 시장에 나오기로 했다. 예상했던 수순이다. MLB닷컴도 "놀랍지 않은 소식"이라며 "김하성은 오른쪽 어깨의 찢어진 관절수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2025시즌 초반에는 결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준수한 타격과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유망주"라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FA 시장에서 김하성은 다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4시즌이 시작하기 전부터 MLB닷컴 등 주요 현지 매체는 "김하성이 2024시즌 뒤 200만달러를 받고 FA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디에슬레틱은 시즌 초, 김하성의 FA 계약 규모를 '연평균 2000만 달러, 총액 1억달러 이상'으로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김하성이 지난 8월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어깨를 다쳐 결국 수술하면서 예상 계약 규모는 줄었다. 디에슬레틱은 김하성을 FA 상위 11위로 평가하며 "어깨 문제가 아니었다면, 연평균 3000만달러에 6년 계약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1년 계약을 하고서 내년엔 다시 다년 계약을 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MLB닷컴은 김하성을 FA 17위로 꼽으며 "2023년 골드글러브 유틸리티 부문 수상자인 김하성은 이번 FA 시장에 나올 유망주 중 윌리 아담스 다음으로 좋은 자원이다. 어깨 문제가 해결되면 김하성을 원하는 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샌디에이고도 김하성과 협상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 MLB닷컴은 "김하성은 전력을 다한 플레이 스타일 덕분에 샌디에이고에서 팬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불렸다"며 "샌디에이고에서 4년 동안 타율 0.242, 출루율 0.326, 장타율 0.380을 올린 김하성도 파드리스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AJ 프렐러 단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김하성의 잔류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